

서언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의 맥을 같이하며 성장해 왔으며 국가 기간 건설사업에서부터 국민의 주거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야에서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설산업은 저치자금,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 국민의 뇌리 속에 부정적인 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인들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깨끗한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기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설문화의 창출이 필수적이다.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건설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칙이 지켜진 새로운 건설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건설인 뿐 아니라, 사회각계의 지도층 인사, 다양한 분야의 현직 CEO, 정·관계 인사,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 동참하여 새로운 건설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와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탄생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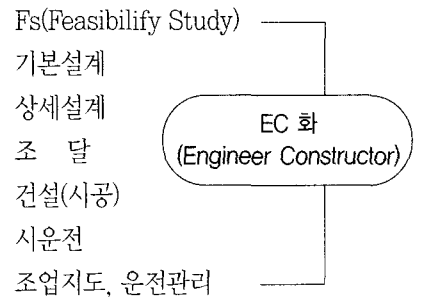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래 건설과 변화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발전해 왔다. 건설에 따라 인류가 발전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동력화 하였다. 인류역사 초기에 수렵→농경→도시건설의 초기 단계로 변화하였으며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상공업이 발생하고 거기에 교통, 주거, 에너지 시설 등의 건설이 필수적으로 대두되었다.

인구, 에너지, 자재, 생산, 교통, 식량, 주거, 오락 등의 변화에 거대한 건설산업

으로 성장하여 변화는 건설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고동 역할을 하였다.

선진형 Gene-con화와 EC화

1988년 대우건설 사장시절 업계 최초로 선진형 Gene-con화를 주장하여 EC화로 발전.



대형 건설업체는 단순시공에서 탈피하여 투자를 통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즉 BOT 같은 사업전개 필요.

⇒ 건설사업의 변화시도

건설업과 백년대계

우리 건설사업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여 100년대계를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일본은 경제가 지금 다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미 일본은 10년전 부터 건설업의 100년대계를 준비해 왔다.

<표 1. 일본이 추구하는 100년 건설업>

| 분류 | 세부내용 |
|--------|--|
| 교통, 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물류시스템 지역 주차장 단거리 교통시스템 |
| 토지,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해안 인공수산시설 고도정화수역 도시내 선수공간 인공지반 |
| 공급,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이용에너지시스템 가스처리시스템 발전시스템 폐기물 수집, 처리시스템 우수이용시스템 자연에너지 이용시스템 |
| 정보,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시스템 지역방재시스템 |
| 환경,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오염방지 녹화호수보전 |
| 지역공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활성화 사업 고령제 cere 시설 |

건설산업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장영수, 한국건설문화원 이사장



성숙한 사회를 향한 사회기반 정세의 필요성 대두

우리의 백년대계

도시의 미래 - 교통, 수송, 하수처리, 급수, 교육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내일의 주택 - 투자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변화해야 하며 태양, 맑은물, 공기, 자연녹지공간 등 점차적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로 변화되면서 주택건설은 감소 추이이다.

폐기물 증가 - 고형폐기물 연간 2억5천만톤의 처리문제 대두. 폐기물의 양은 연

간 4~6% 증가. 12~18년에는 2배로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미래전문가 - CM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건설업외 전분야 corer). 대형건설업체는 EC화에 적합한 각 부분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 - 신뢰받는 기업으로의 변신이 필요하며 존경받는 건설인으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결어

건설경기가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여건으로 위축. 특히,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표 2. 2004년도의 경제성장률>

| 연구기관별 | 2003년 | 2004년 |
|-----------|-------|-------|
| KDI | 6%대 | 4%대 |
| 삼성경제연구소 | 5.8% | 3.0% |
| LG경제연구소 | 6.4% | 3.7% |
| 현대경제연구소 | 5.6% | 2.8% |
| 건설사업전략연구소 | 6% | 3% |

주택수요공급 위축, 이에 따라 내년 건설경기 전망도 매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건설산업은 성장과 매출 신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사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하고, 신뢰와 믿음이 가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산업으로 변신해야 한다.